Romeo and Juliet Fantasy Overture

- □□

정보

Romeo and Juliet Fantasy Overture

개요

- 작품명 : *Romeo and Juliet Fantasy Overture*
- 작곡가 : Pete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 작품 성격 :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따른 단악장 환상서곡
- 조성 : B단조
- 판본 : 1869년 제 1판 , 1870년 제 2판 , 1880년 제 3판 . 오늘날에는 제 3판을 주로 연주합니다 .
- 작품 목록 번호 : TH 42
- 악보 : IMSLP
- 기본 정보 : Wikipedia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서곡》 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장면 순서대로 들려주는 줄거리 음악이 아니다 . 로렌스 신부와 연결된 성가풍 서주 , 두 집안의 충돌을 나타내는 빠른 음악 , 연인들의 사랑을 담은 두 선율을 단악장 안에서 맞세우고 변형하여 비극의 핵심을 압축한다 . 조용한 목관 화음에서 시작한 음악은 난폭한 운동과 넓게 노래하는 선율 사이를 오가다가 , 사랑의 음악마저 파국에 휩쓸린 뒤 장송 행진과 단호한 종지에 이른다 . 널리 알려진 사랑 주제만 떼어 들으면 감미로운 명곡처럼 느껴지지만 , 전곡의 설계는 그 선율이 얼마나 불안정한 세계에 놓여 있는지를 끊임없이 드러낸다 .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 판본을 구분해야 한다 . 차이콥스키는 1869년에 첫 총보를 완성했고 , 1870년에는 서주와 발전부를 비롯한 상당 부분을 다시 썼으며 , 1880년에는 종결부를 압축하여 오늘날 통용되는 제 3판을 만들었다 . 제 1판에서 제 2판으로 넘어갈 때에는 작품의 중심 구조가 바뀌었고 , 제 3판에서는 이미 확립된 재료가 더 짧고 필연적인 결말을 향하도록 다듬어졌다 . 따라서 이 작품은 한 번의 영감으로 완성된 초기 성공작이라기보다 , 외부의 날카로운 비평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판단을 잃지 않은 작곡가가 십여 년 동안 완성도를 높인 기록에 가깝다 .

발라키레프의 제안에서 출발한 작품

1869년 여름 밀리 발라키레프는 차이콥스키에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을 관현악곡의 소재로 권했다. 그의 역할은 제목 하나를 건네는 데 그치지 않았다. 차이콥스키는 그해 10월 28일 /11월 9일 편지에서 로렌스 신부를 나타내는 서주, 싸움의 알레그로, 사랑의 제 2주제라는 전체 배치가 발라키레프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E 장조의 서주, B단조의 빠른 주부, D♭장조의 사랑 음악이라는 첫 조성 구상도 발라키레프에게서 왔다. 작품을 차이콥스키가 썼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출발점에는 두 음악가 사이의 구체적인 설계와
비평이 있었다.

차이콥스키는 1869년 10월과 11월에 빠른 속도로 제 1판을 완성했다. 그러나 발라키레프는 보내온 주제들을
보고 서슴없이 결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 서주가 로렌스 신부의 종교적 성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보았고, 오래된 가톨릭 코랄과 같은 엄숙함을 요구했다. 반면 D♭장조의 사랑 선율은 높이 평가했다. 이 반응은 차이콥스키가 발라키레프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뜻이 아니다. 1870년 제 2판의 새 서주를
설명하면서 차이콥스키는 리스트풍의 종교 음악을 그대로 만들기보다 ‘정신으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고독한 영혼 ’을 표현하려 했다고 밝혔다. 조언은 개작을 촉발했지만 , 최종적인 음악의 성격은 작곡가 자신의 판단으로 정해졌다.

제 1판은 1870년 3월 4일 /16일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루빈시테인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 앞의 날짜는 당시 러시아에서 쓰던 구력, 뒤의 날짜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력이다. 초연 직후 차이콥스키는 이 곡을 자신이 쓴 작품 가운데 가장 낫다고 여겼지만, 두 달 뒤에는 아무런 성공도 얻지 못하고 완전히 주목받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발라키레프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동료들은 사랑 음악을 특히 좋아하면서도 시작과 끝, 구조상의 빈틈을 계속 문제 삼았다. 미온적인 초연 반응만이 개작의 원인은 아니었으며 , 작곡가 자신도 작품의 좋은 재료와 미흡한 조직 사이의 간격을 알고 있었다.

세 판본과 십여 년의 개작

1869년 제 1판

제 1판은 Andante non troppo–Allegro giusto, 448마디로 이루어지며 대개 15–17분이 걸린다. 오늘날의 서주와 다른 E장조 도입부를 사용하고, 발전부에는 긴 푸가토와 여러 주제가 함께 등장하며, 종결부도
최종판과 크게 다르다. 이 총보는 작곡가 생전에 출판되지 않았고, 1950년 차이콥스키 작품전집 제 23 권에서야 처음 인쇄되었다 . 그러므로 ‘1869년 초판 ’이라는 표현은 작곡 과정의 첫 판본을 뜻할 때에는
가능하지만 , 출판된 첫 총보를 뜻하는 말로 쓰면 틀린다.

1870년 제 2판

차이콥스키는 1870년 여름 스위스에서 대규모 개작을 구상하고, 모스크바로 돌아와 9월에 관현악화를 마쳤다 . 그가 발라키레프에게 보낸 9월 6일 /18일 편지는 변화의 범위를 명료하게 전한다. 서주는 새로 썼고,
중간부는 거의 전부 새로 만들었으며 , D장조로 돌아오는 사랑 주제는 완전히 다시 관현악했다 . 현대 출판사의 재료 비교에 따르면 제 2판 539마디 가운데 제 1판에서 유지한 부분은 197마디이고, 342마디가 새로 쓰였다. 단순한 손질이라기보다 작품의 논리를 다시 세운 재작성이다 .

새 서주는 F♯단조의 성가풍 음악으로 바뀌었고, 발전부에서는 사랑 주제를 비워 둔 채 서주의 코랄과 투쟁
재료가 맞부딪치게 되었다. 그 결과 사랑 선율은 재현부에 돌아왔을 때 훨씬 큰 의미를 얻는다. 제 2판은 1871 년 베를린의 보테 운트 보크에서 처음 출판되었고 , 1872년 2월 5일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에두아르드 나프라브니크가 처음 연주했다. 간혹 이 판을 ‘1872년판 ’이라고 부르지만, 1872년은 초연 연도일 뿐이다. 작곡과 개정이 끝난 해를 기준으로 하면 1870년판이 정확하다.

1880년 제 3판
차이콥스키는 한동안 제 2판을 완성작으로 여겼으나, 1880년 8월 카멘카에서 마지막 약 80마디를 다시 검토했다. 전면 개작은 아니었다. 34마디를 새로 쓰고 제 2판의 E♭장조 삽화를 없애면서 Moderato assai 와 코다를 압축해, 539마디였던 작품을 522마디로 줄였다. 이전 결말이 비극 뒤에 오래 머물렀다면 , 새 결말은 사랑의 잔향과 장송 리듬을 짧게 응축하고 강한 마지막 화음으로 단절한다. 발라키레프는 일찍부터 그 강한 화음에 반대했지만 차이콥스키는 이를 남겼다. 제 3판을 발라키레프의 요구에 뒤늦게 완전히 굴복한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1880년 8월 29일 /9월 10일 편지에서 차이콥스키는 출판자 표트르 유르겐손에게 교정한 총보와 네 손 피아노 편곡을 보테 운트 보크로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오자를 바로잡고 제목을 ‘서곡 ’에서 ‘환상서곡 ’으로 바꾸었으며 , 앞선 인쇄본에서 빠진 발라키레프 헌정을 복구했다. 최종판 총보는 1881년에 출판되었다 . 현재 확인되는 최초 공연은 1886년 4월 19일 /5월 1일 티플리스에서 미하일 이폴리토프이바노프가 지휘한 연주다. 인쇄본이 이미 다섯 해 동안 유통된 뒤였으므로 , 더 이른 공연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확인되는 최초 공연 ’이라고 부르는 편이 정확하다.

자료와 악보의 전승

출판 정보와 자료

보테 운트 보크는 처음에 1869년 원판을 넘겨받아 출판을 준비했지만 , 차이콥스키는 교정 단계에서
개정판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출판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결과 1871년에 나온 첫 인쇄 총보는
음악적으로 제 2판이다. IMSLP가 이 인쇄본을 ‘1st Version’으로 분류한 것은 첫 출판물이라는 뜻과 음악의 첫 판본을 혼동하기 쉬운 사례다. 1881년 보테 운트 보크의 최종판에는 Roméo et Juliette: Ouverture-Fantaisie d’après Shakespeare라는 새 제목과 발라키레프 헌정이 실렸다.

1950년 모스크바에서 나온 차이콥스키 작품전집 제 23권은 판본 비교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 아나톨리
드로즈도프와 이고리 벨자가 편집한 이 권에는 제 1판과 제 3판의 전곡이 들어 있지만, 제 2판은 460마디
이후의 종결부만 수록한다. 따라서 이 전집 한 권만으로 제 2판 전곡을 온전히 비교할 수는 없다.

러시아 국립음악박물관에는 제 1판의 자필 총보와 제 2판 개작 때 생긴 자필 단편들이 남아 있다. 최신 기관 목록에서 제 1판은 ф. 88, № 62, КП 554, 제 2판의 1–101마디와 273–353마디는 ф. 88, № 66, КП 555, 346 마디부터 끝까지는 ф. 88, № 67, КП 555 로 정리되어 있다. 오래된 영문 자료가 제 1판 자필 총보를 № 65 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기관 목록 두 곳이 일치하는 № 62 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1880년 최종 개정
자체를 담은 자필 총보나 교정 원고는 현재 공개된 소장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공연 자료로는 빅토르 예키몹스키가 편집한 벨라예프 총보 BEL 667이 있다. 출판사는 앞선 인쇄본에
남은 인쇄 오류와 작곡가의 표기상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 보고서를 덧붙였다고 설명한다. 인쇄 총보는 144 쪽이고 공연용 파트는 대여한다. 다만 출판사가 자필 자료 전체에 근거한 원전비평판이라고 표방하지는 않으므로, ‘완전한 우르텍스트 ’보다 ‘현대 교정 공연판 ’이라고 부르는 편이 알맞다.

소요 시간

오늘날 주로 연주하는 1880년 제 3판은 지휘와 음반에 따라 약 18–22분이 걸린다. 제 2판도 대체로 20분 안팎이며, 448마디인 제 1판은 보통 15–17분으로 더 짧다. 이 차이는 단순히 템포에서 생기지 않는다. 제 1 판과 제 2판의 발전부와 종결부가 서로 다르고, 제 3판은 제 2판의 마지막 부분을 압축했기 때문이다.

편성

목관악기 :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A조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악기 : F조 호른 4, E조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타악기: 팀파니 3, 심벌즈, 큰북
기타: 하프, 현악 5부

세 판의 기본 편성은 같다. 타악기를 많이 쓰지 않는데도 충돌 장면이 날카롭게 들리는 까닭은 심벌즈를 계속 두껍게 겹치기보다 불규칙한 악센트로 배치하고, 빠른 현악 음형과 금관의 압력을 정면으로 부딪치게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랑 음악에서는 잉글리시 호른과 약음 비올라처럼 쉽게 섞이지 않을 듯한 음색을 결합하여, 온기와 거리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소리를 만든다.

단악장 안에 압축한 비극
최종판의 빠르기 표시는 Andante non tanto quasi Moderato–Allegro giusto 다. 전체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며, 악보에 별도의 악장이나 표제 장면이 나뉘어 있지 않다. 다만 음악의 큰 흐름은 느린 서주, 소나타 형식에 가까운 빠른 주부, 비극적 종결부로 들을 수 있다. 러시아 국립예술학연구소의 작품 분석은 서주를 1–111마디, 제시부를 112–272마디, 발전부를 273–352마디, 재현부와 종결부를 353마디 이후로 설명한다. 이 숫자는 공식 구획의 이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재료가 언제 등장하고 충돌하는지를 추적하는 좌표다.

낮은 클라리넷과 바순이 여는 F♯단조 서주는 정교회의 성가처럼 단선율로 흐르기보다 , 서양 교회음악을
떠올리게 하는 화음식 코랄에 가깝다. 발라키레프의 최초 설계에서는 로렌스 신부를 나타내지만 ,
차이콥스키가 새 서주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고독한 영혼 ’이라고 설명한 만큼 한 인물의 초상으로만 좁힐 필요는 없다. 목관 화음 사이로 높은 선율이 떠오르고, 하프와 현악의 움직임이 조금씩 공간을 넓힌다. 고요한 시작 안에 불안정한 화성과 긴 호흡이 들어 있어, 뒤의 비극은 갑자기 침입하기보다 처음부터 예고된다.

빠른 주부가 시작되면 B단조의 투쟁 재료가 휴식 없이 몰아친다. 날카로운 당김음, 짧게 끊기는 악센트, 급히 달리는 현악과 심벌즈의 충돌이 두 가문의 적대를 만든다. 이 음악은 영웅적인 행진이라기보다 방향을 자주 틀고 서로의 말을 가로막는 집단적 폭력에 가깝다. 이어지는 사랑의 영역은 D♭장조로 멀리 이동한다. 먼저 잉글리시 호른과 약음 비올라가 같은 선율을 겹쳐 부르고, 뒤이어 약음 현악의 화성 위에서 플루트와 오보에가

금관이 코랄을 내놓을 때에도 현의 운동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 두 층을 분리해 들려주어야 발전부의 충돌이
단순한 격렬함을 넘어 구조로 인식된다.

첫 사랑 주제는 뒤의 절정을 미리 소모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 잉글리시 호른과 약음 비올라의 결합이
충분히 들리도록 하되, 지나친 늘임과 무거운 진동으로 선율을 멈추지 않는 편이 좋다. 루바토도 한 구절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랑 음악 뒤에 투쟁 재료가 돌아올 때 원래의 추진력을 회복해야 두
세계의 충돌이 선명해진다 . 재현부에서는 넓어진 현악의 음향 속에서도 목관의 윗성부와 하프가 묻히지
않아야 하며, 코다는 장송의 침착함과 마지막 화음의 단호함을 모두 지켜야 한다.

판본을 나란히 연주하면 이러한 선택의 배경이 더 잘 들린다. 블라디미르 유롭스키는 2008년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와 1869년판 및 1880년판을 한 공연에서 비교했다. 당시 평자는 투명하고 따뜻한 시대악기
음향이 제 1판의 고전주의적 골격을 드러냈다고 보았다. 제 1판을 최종판보다 못한 미완성품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긴 푸가토와 별도 결말을 지닌 창작 단계로 들으면 차이콥스키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보존했는지가
선명해진다 .

녹음으로 듣는 판본과 해석

1880년 표준판: 이반 피셔와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이반 피셔가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2004년에 녹음한 Channel Classics CCSSA 21704는
표준판을 처음 들을 때 균형 잡힌 선택이다. 18분 57초의 연주로, BBC Radio 3의 Building a Library에서
2017년 First Choice, 2025년 Recommended Recording으로 선정되었다 . 비교 평가는 불길한 서주의 긴
호흡, 싸움 음악의 투명하고 정밀한 움직임, 시를 낭송하듯 유연한 사랑 주제를 강점으로 꼽았다. 모든 대목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세 영역의 성격과 전환을 분명히 들려준다는 점에서 작품의 설계를 따라가기 좋다.

극적 전통: 레너드 번스타인과 뉴욕 필하모닉

레너드 번스타인이 뉴욕 필하모닉과 1957년 1월 28일에 녹음한 연주는 역사적인 극적 해석을 보여준다. 싸움
음악은 거칠게 전진하고, 사랑 주제에는 유연한 루바토와 포르타멘토가 들어가며, 다시 투쟁으로 넘어갈 때
에너지를 즉시 회복한다. 1957년의 모노 음향과 완전히 매끈하지 않은 합주는 현대 녹음과 비교하면
제약이지만 , 사랑의 노래와 집단적 폭력이 번갈아 전면에 나서며 긴장을 높이는 과정을 강렬하게 전달한다.
같은 지휘자의 후대 녹음들과 구분하여 이 첫 세션을 찾는 편이 좋다.

1869년 원판: 블라디미르 유롭스키와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제 1판은 유롭스키와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가 2007년에 녹음한 Pentatone PTC 5186 330으로 비교할 수 있다. 2008년에 발매된 이 음반은 1869년 원판임을 명시하며, 현대적인 음질로 다른 서주와 긴 푸가토, 폐기된 결말을 들려준다. 다만 현재 상업화된 제 1판 녹음들은 1950년 소련 작품전집을 바탕으로 하며 자필 총보의 지시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주를 ‘자필보를 완전히 복원한 결정판 ’이라고 소개해서는 안 된다. 알려진 최초의 제 1판 상업 녹음은 제프리 사이먼과 런던 심포니가 1981년에 남긴 16분 27초의 연주다.

1870년 제 2판은 접근하기가 훨씬 어렵다. 현재 확인된 실제 관현악 녹음은 발두르 브뢰니만과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2007년 2월 14일 BBC Radio 3을 위해 제작한 방송물뿐이며 , 상업 발매는 확인되지 않는다. Tchaikovsky Research에 공개된 제 2판 비교 음원은 악보 프로그램과 가상 악기로 만든 재현이므로
이 BBC 연주나 상업 음반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

자료

주요 자료

러시아 국립예술학연구소 차이콥스키 백과사전: 《로미오와 줄리엣》
Tchaikovsky Research: Romeo and Juliet
Tchaikovsky Research: 1870년 9월 6일 /18일 편지 205
Tchaikovsky Research: 1880년 8월 29일 /9월 10일 편지 1573 Tchaikovsky Research: 미완성 오페라 Romeo and Juliet
Schott Musicㆍ Belaieff: 빅토르 예키몹스키 편집 제 3판
Boston Symphony Orchestra: Harlow Robinson 작품 해설
Los Angeles Philharmonic: Hugh Macdonald 작품 해설
Indianapolis Symphony Orchestra: Marianne Williams Tobias 작품 해설 Tchaikovsky Research: Tchaikovsky on Disc, 2025년 9월판
BBC Music Magazine: 주요 녹음 비교
Pentatone: Vladimir Jurowskiㆍ Russian National Orchestra
Presto Music: Iván Fischerㆍ Budapest Festival Orchestra